

<4강> 도시의 풍경, 그 잔혹의 스펙터클

1. 도시의 두 얼굴

지아 장커의 북경.

지아 장커의 <세계>라는 영화는 ‘세계공원’을 배경으로 한다. 북경의 세계공원에는 말 그대로, 세계가 재현되어 있다. 파리, 뉴욕, 동경, 로마... 주인공은 모노레일을 타고 화려한 도시들을 돌며 각국의 삶을 춤으로 재현한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원 속 세계’를 벗어나면, 이내 스산한 북경의 뒷골목과 비가 새는 판자촌, 그리고 잿빛 공단의 풍경이 펼쳐진다. ‘세계공원’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짝퉁 에펠탑에 올라 ‘세계’를 조망하는 사이, 공사판에서 야근을 하다 다친 친구는 ‘빛목록’을 유서로 남기며 죽어간다. 세계, 라는 제목의 묘한 울림. 이미지로서의 세계와 현실로서의 세계. 화려한 도시와, 그 화려함이 감춘 참혹한 죽음의 도시.

마띠유 카소비츠의 파리.

마띠유 카소비츠의 <증오>는 지구에 떨어지는 화염병과 함께 시작된다. 인상주의 회화에서 그토록 아름답게 묘사되었던 파리 외곽은, 현재 유색인종들의 게토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마약하면서 살아가는, 미래 없는 이 게토의 청소년들에게, 파리는 ‘당신들의 천국’이다. 파리는 끈질기게 그들을 밀어낸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와 거만하고 무자비한 부자들의 파리.

그리고 우리의 서울.

밤낮으로 풀가동하는 전력의 힘으로 복원된 청계천, 광화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화려한 야경, 강남의 ‘유럽스러운’ 아케이드와 카페. 그러나 그 화려함에 비례해서 점점 더 빈곤해지는 극빈자들의 게토. 도시의 ‘구멍’.

도시의 극과 극. 화려함이 쓸어버리고 감춰버리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도드라지는 빈곤의 풍경. 이 도시에서 풍경을 보는(혹은 그리는) 일이, 가능할까?

2. 건축된 파리

- 오스망의 철거와 대로정비사업(1853-1869)

* “파리의 모든 것은 광대하여, 통행인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영국의, 파리 안내책자)

* “내가 실천이라고 의미하는 ‘오스망’이라고 불리는 방법... 그것은, 우리들 거대 도시의 노동자 구역에서, 특히 핵심적으로 자리잡게 된 이들 구역에서, 이제 보편적인 돌출구가 되었다. .. 그 결과는 어디에서나 똑같다. 이러한 거창한 성공을 구실삼는 부르주아 계층의 사치스러운 자화자찬과 병행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뒷골목과 좁은 거리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들 골목과 거리는 즉시 어디에선가 또 종종 이웃으로 나타난다.”(엥겔스, 「주거문제」, 1872)

* “쓸쓸하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회색의 끝없는 담너머로 눈을 들면, 파리의 아침 나절의 소음으로 가득 찬 밝은 빛, 먼지 낀 햇빛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 갑작스럽게 정지해서 차도 위에 물결처럼 늘어선 사람들, 등엔 연장을 메고, 팔엔 도시락을 든, 일터로 가는 노동자들의 끝없는 행렬이 거기엔 있었다. 그 군중들은 파리로 몰려들어, 거기서 계속적으로 익사하는 것이었다.” (졸라, 『목로주점』)

* “파리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리를 이룬 것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 호화로운 상

점들, 높다란 가옥들, 혼잡스레 엉킨 차량들, 극도의 사치와 극도의 빈곤의 한결같은 대조 등이 가장 먼저 주의를 사로잡는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중의 물결에 놀란 이 공상가는 자신이 몹시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골에서라면 존경을 받으며 발자국 하나 내딛을 때마다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곤 하는 사람들은, 파리에서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고 마는 현상이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는 법이다.”(발자크, 『사라진 환상』.)

* “근대인의 원형은 근대 도시의 교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보행자이다. 무겁고 빠르고 치명적인 어떤 부피와 에너지의 덩어리를 홀로 상대해야 하는 인간 말이다. 성장하는 거리와 대로의 교통에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없이 모든 도시 공간으로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간 속에 그 속도를 강요하며, 근대 환경 전체를 ‘움직이는 혼란’으로 바꿔버린다.”(마샬 버먼, 『현대성의 경험』)

- 도심 안에 자연을 건축하라!

* “지하의 저 회랑들은 메트로폴리스의 신체 기관이며, 대낮의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인간 신체의 내장 기관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물과 빛과 열은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보충 작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액체처럼 순환할 것이다. 이러한 액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 활동하며,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또 그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지 않고 공중의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오스망)

- 박람회, 스펙터클의 창출

* 온실 - 유리상자 - 수정궁

* “상품이라는 물신에 대한 순례 장소”, “자본주의 문화의 주마등이 가장 찬란하게 펼쳐지는 곳”(발터 벤야민)

* “문명을 자극의 봉투 속에 모아 놓으면 박람회가 된다. 박람회를 둔탁한 밤이 모래로 거르면 찬란한 일루미네이션이 된다. 만약에 살아 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일루미네이션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명에 마비된 문명의 인민들은 깜짝 놀랄 때 비로소 살아 있구나 하고 깨닫는다.”(나쓰메 소세키)

- 군중 속의 산보자

* 현대예술가는 “자신의 집을 군중의 가슴 한가운데, 방랑성과 무한성의 한가운데”에 세워야 한다. “보편적인 삶의 찬양자는 군중이 전기 에너지의 거대한 저장소라도 되는 듯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는 “경건하든 또는 괴상하든 간에, 살아 있는 존재의 태도와 제스처 및 그것들이 공간에서 빛나는 폭발을 동시에 표현해야만 한다.”(보들레르, 『현대생활의 화가』, 보들레르, 1859)

*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 정부나 기요틴이나 교회나 콜레라까지도 허용된다. 파리 사회에서 당신은 항상 환영받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없어도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다.” (발자크)

*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어떤 선량한 프랑스인을 만나서 그가 진보에 의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은 증기, 전기 및 가스불빛, 로마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기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것처럼 불행한 머리 속에 모여진 무지는 이와 같은 것이다.”(보들레르)

- 도시의 다크사이드

* “부유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속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의 크고, 환기가 잘 되고, 금박 입힌 살롱.” VS “중산계층 시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가옥의 공기가 불결하다면, 길거리이 대기가 사실상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뒷골목 상가로 악취를 뿜

어낸다면, 이런 해악 외에도 이 거대한 도시의 4천 호의 가옥이 진창에 기초를 세우고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파리 인구의 절반은 길거리와 뒷마당과 야외 화장실에서 풍기는 부패한 증기를 밤새 마시면서 잠든다.”(발자크)

* “공장의 먼지를 들이마시고, 솜가루 속에서 숨쉬며 백랍과 수은과 기타 걸작품 제작에 필요한 온갖 독성물질에 세포가 찢들게 내버려두는 이 병든 군중이 보여주는 스펙터클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발터 벤야민)

3. 매혹과 잔혹을 넘어

“아아, 도시의 얼굴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하는구나!”라며 한탄했던 보들레르는, “치욕의 도시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쓴다. 벤야민은, “도시는 매일 새로운 것을 약속하지만, 밤이 되면 그것은 단지 소망으로만 남는다.” 라고 쓴다. 그리고, 김승옥의 주인공은 영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로 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은 채 “차게 빛나는 푸른색의 아스팔트 위에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눕혀버리고”만 사람들처럼, 상처 입은 채 침묵하는 누이에게서 “향수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사람들이 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등불 같은 눈빛”을 본다. 이들에게 도시는 환멸과 잔혹의 공간인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도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어낸 공간이다. 권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에 흐름을 팜으로써 흐름을 조절하고 절단하며, 그 공간을 오가는 신체에게 적절한 속도를 강요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근대 도시의 속도란 자본의 속도라는 사실이다. 거대한 소비의 스펙터클.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도시에서 전혀 다른 흐름과 속도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여전히 ‘문명’의 힘을 과시하며 무수한 구멍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도시 안에서, 다른 속도를 갖고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보들레르의, 벤야민의, 김승옥의 체념적인(다소 환멸적인) 매혹을 넘어서, 도시 안에서 새로운 풍경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